

신년사

과학적인 방재 서비스 제공위해 계속 정진

李大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1985년이 가고 희망찬 1986년의 새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켜 보면 85년 7월초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던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문제는 급기야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시장조사요구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12월9일 부터는 전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가운데 실무조사단이 내한하여 관계당국과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등 업계로서는 실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간 각 언론매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하고 있는 7대도시의 특수건물 및 방산물건등에 대한 화재보험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때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대외개방에 앞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2개 미국계 손보사에 대해 우선제향적인 화재보험료,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 공동주택, 호텔, 공장등은 아직까지도 우리 화협의 빈틈없는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건들이 국내 전체 손해보험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94.8%는 이미 미국계 2개 보험회사에게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기밀유지상 개방이 도저히 불가능한 방산물건을 포함하여 특수건물보험 전부를 완전 개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정을 무시한 지나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협회는 창립이래 12년여에 걸쳐 방재의 불모지였던 우리 산업전반에 대해 광목한만한 수준의 방재시설과 설비를 갖추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76년 대상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주, 광주등 7대도시로 확대된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건물의 화공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피난시설등 각종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40%에도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보험회의 꾸준한 점검과 지도 계몽에 힘입어 84년도에는 이러한 시설들의 양호율이 무려 80.6%에 달할 정도로 방재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되어 81년도에 업종에 따라 최고 2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처음으로 주어졌고 지난 84년부터는 계속해서 최고 3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화협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3월경 문을 열게 되는 방재시험소설립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UL등에 버금가는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방재기술의 혁신은 물론 보다 과학적인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특수건물 및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위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험서비스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협회업무에 대해 열렬히 성원해 주신 관계기관, 사원사,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국민여러분을 위해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86년 원단

李大鎔 謹啓